

주의 세례 축일

기도서 P. 239 A해

제1독서(이사 42, 54, 6-7)
제2독서(사도 10, 34-38)
복음(마태 3, 13-17)

숲정미

발행인 김 환 철
인쇄인 김 봉 희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02935)

□강론

새 時代의 목욕재제

조 정 오 신부

軍生活를 겪은 모든 남자들은 훈련소에서 그 알량한 목욕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4~5坪이나 될까 말까한 샤워장에 40~50名씩을 몰아 넣고 군대에서 말하는 俗語로 0.5초만에 끝내는 제트기식 목욕이지요. 벗은 채 샤워장에 들어서면 뜨거운 물이 내리 붓어집니다. 그 뜨거운 물을 피해서 이리 뛰고 저리 비키다 보면 열사함과 부딪쳐서 찢겨지는 목욕이요. 뜨겁다고 아우성치면 이번에는 찬물이 한바탕 쏟아지는 판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물은 딱 끊어지고 목욕이 다 끝났다고 물아 내는 목욕이지요. 하지만 그렇게나마 목욕을 했다는 그 사실은 따뜻한 온천수에 몇 時間씩 담갔다 꺼낸 몸보다도 훨씬 더 가볍고 상쾌함이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生活에서 물이 없을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습니까? 한발로 인해 食水마저 드립통에 담아 날라야 하는 어려움을 經驗했으며, 더러움은 무엇으로 씻어내겠습니까?

사람들은 重大한 일이 닥칠 때마다 목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주 목욕을 안하는 사람이라도 설날 그믐이 오면 새해를 맞이 위해 목욕을 하고, 새 家庭을 꾸미려는 신랑 신부는 혼인의 重大事에 앞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굿을 하기 위한 무당은 미리서 목욕재제합니다.

깨끗하게 하려는 人間의 마음들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깨끗함은 바로 정성과 통하는 것인가 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요르단 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罪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굳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구원에 필요불가결한 세례라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 주셨음이지요.

둘째는 30년간의 긴 사생활을 정리하고 公生活에 나감에 있어 중대한 계기를 마련코자 함인것 같으며, 셋째는 너무도 중대한 구원사업에 임하기 전 몸과 마음의 깨끗함, 즉 정성을 바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세례를 받은 예수님 위에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부의 축복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과 성령은 똑같이 다 생명을 뜻합니다. 우리의 외적 씻음은 물로써이며, 내적 정화는 성령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새 時代가 열렸다고 공허한 소리들을 외칩니다. 나 자신부터의 깨끗한 목욕이 진정한 정화운동일 것입니다. 결론으로 “내탓이요”를 외치며 가슴을 두드리고 정성을 기울일 때 진정한 새 시대가 올 것이며, 참된 세례의 의미를 살게 될 것입니다. 0.5초만의 목욕이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정성스럽게 온 몸의 구석 구석을 닦아내고 겸손되이 하느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진정한 새 시대는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덕진 천주교회 보좌신부>



님이며, 제발...

—신년송(新年頌)—

사람들마다 새해를 맞는 소망이 크다. 신년 특집으로 꾸민 주요 일간지들은, 소위 명사들의 입을 통하여 나라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다루었다. 그 내용을 한 두 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큰 오류를 범할 소지가 크지만, 대개는 “무리(無理)하지 말자”, “솔직하자”는 등의 내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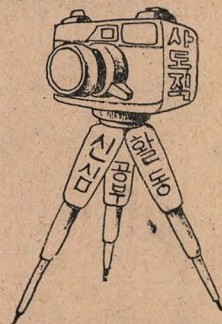
지금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아마, “민주 회복과 경제 회복을 통한 민족 중흥”이요, 나아가 “평화 통일”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해서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인간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다.

한국적인 상황과 국제 경제의 문제점을 심분 감안해서, 우리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민족의 안녕을 위해 신명을 다하고 있는 우리의 아들들이 국군이 있다. 또 쥐새끼처럼 기어드는 간첩을 신고할 줄 아는 반공정신으로 무장된 우리들이 아닌가. 그리고, 허리띠를 매자고 할 때에는 두 말없이 따르는 선량한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무리하지 않으며 거짓없이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할 길잡이들이 필요한 것이다.

“선생님(교수님, 박사님)과 신부님(스님, 목사님)들께서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 제발 약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시장님(군수님, 서장님, 지사님, 장관님)과 판사님(검사님), 국회의원님과 장관님, 그리고 대통령께서 오직 백성들을 위해서 정직하게 봉사해 주십시오. 제발 사심과 명리(名利)를 버리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순리(順理)대로 살시다. 그럴 때에 우리의 소망도 이루어 지겠습니다.”

이러한 소박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이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 결허해야 하는 것이다. 진리의 목소리에 무릎꿇고 귀기우릴 수 있는 결허가 필요한 것이다.

숲정미 산책



사도직의 3요소

「자비로우신 하느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지난 12월 2일 두번째의 회칙 「자비로우신 하느님」(Divesin Misericordia)을 발표하였다.

분쟁과 긴장으로 상처 투성이가 된 오늘날 이 세상에서, 자비와 사랑과 정의의 관계를 통찰하고 있는 이 회칙은 '하느님의 자비'(De Divina Misericordia)를 논하면서 인간관계 안에서의 '자비로운 사랑'을 촉구하고 "정의만이 아니라 복음의 구체적인 메시지를 이루는 '자비로운 사랑'을 인간관계 안에 받아들일 때에만, 보다 인간다운 사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여기 회칙의 중요 대목을 두차례로 나누어 소개한다.
(L'OSSERVATORE ROMANO)

나를 아는 사람은 아버지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 아버지를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느님'(에제 2. 4)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는 이 '자비로우신 아버지'이며 모든 위로의 근원이신 하느님'의 모습은 특히 위급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더욱 주의될 기쁨이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곧 자비입니다. 따라서 그분 안에서 자비를 보는 사람에게는 하느님도 한없이 자비로우신 아버지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현대의 정신과 모든 인간생활은 자비의 하느님을 거슬러 자비의 관념을 배제해 버리고, 오히려 끊임없는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위협을 올바르게 지적하고 이 시대에 하느님의 자비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전 생애를 통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고통과 불의와 가난, 전 역사의 '인간조건'에 부딪혀 드러납니다. 이런 사랑의 형태와 범위를 성서에서는 '자비'라고 하고 특히 신약성서에서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의 내부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이 자비와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온갖 형태의 악에서부터 선을 이끌어내 증진 시키고 가치를 회복시켜 줍니다. 죄악을 선으로 극복하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 죽음은 이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철저히 보여 주신 것이었고 그의 부활은 죽음보다도 강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자비로운 삶의 태도 곧 그것입니다.

"나 주님의 자비를 영원토록 노래하리이다"(시편 89. 1)

〈다음호에 계속〉

성심치과의원

(만수병원 옆)

원장 강기현 (원전시오)

전화 ⑥ 6917-1294

군산시 중앙로 1가 96

교회 상식란

순정이편집실은 81년부터 새로운 편집 기획물로 교회 상식란과 교리교실란을 마련했다. 누구나 모르는 것을 믿기에는 어렵고 이해하지 못하면서 친숙하는 것 역시 힘든 일이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르는 것, 궁금한 것이 많지만 누구에게 물어보거나 책을 찾아 본다고 하면서도 기회를 놓치고 점점한체 그냥 생활하기가 일수다. 더구나 비신자들로부터 교회의 상식적인 문제나 교리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이 곤란할 때는 더욱 난처하다. 늘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보고, 참여하면서도 막상 말로 설명하려면 표현이 막혀 버린다. 새로이 마련되는 이 란은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함께 다시 알고 이해하고 생각해보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미사에 참여하지만 많은 것을 모른다. 미사에 사용되는 성기구와 제의만 해도 그렇다. 미사의 의식안에 나오는 용어도 그렇다. 늘 참여하고 만나는데 습관적으로 구경하는 꼴이 되기 일수다. 그래서 자칫하면 맹신에 빠지기 쉽다. 알아야 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깊이 참여하고 생동감 있는 산전례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각종 전례와 신심활동과 교회행사에 대해서 또 간단한 교리 상식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면 다 함께 알자. 알려는데 무슨 체면이 있는가. 내가 유치하다고 여기는 그것은 내 문제만이 아니라 모두가 알아야 할 문제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시시한듯 하면서도 가장 근본적으로 알아야 할 일이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되는 교리상식란과 교리교실란은 곧 우리 모두의 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궁금증이 있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라도 편집실에 투고 바란다.

「열심히 배우고 익히자」

—수도자 선교세미나를 마치고

본 교구는 금년의 모든 교육 방향을 교구 사목지침인 이웃전교에 두고 복음적 연구와 함께하는 이웃 전교를 위해 실질적인 사목적 교육을 실시할 것을 계획하고 1월부터 4월중 동절기를 이용하여 평신도 교육에 총 주력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첫 교육으로 지난 2일~3일동안 수도자 선교세미나를 가졌다. 교구내 수녀 52명이 참석하여 강의와 함께 수도자로서의 실제적인 본당 사목상의 여러가지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이웃 전교를 위한 보다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임으로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

교구 계획에 의해 계속 실시될 금년도 사목지침인 이웃 전교를 위한 교구 교육에 적극적인 참여로 배우고 익혀서 이웃 전교의 몫을 다하자.

三星物産 전주 특약점



워크엔드
Weekend



버킹엄
Buckingham



맥그리거
McGREGOR

주니어·아동복

전주시 중앙동 3가 96-2 삼화약국 옆
전화 ⑥ 4451 윌리안나

—새해에 받은 첫 편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시련을 받아들이는 태도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 태도의 동기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또 무엇이 그와 같이 행동할 수 있는 심리적 배경과 정신적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일까—

「암」이라는 선고와 함께 큰 수술을 받고 계속 투병중인 어느 엄마를 방문하고 뼈를 짚는 고통을 오히려 신앙으로 기쁘게 받아 드리는 모습에서 감동했었습니다.

고통받는 많은 분들을 우리의 기도중에 기억하고 하느님의 위로를 빌어 드리는 마음으로 새해에 제가 받은 첫번 째 편지를 여러분과 같이 읽고 싶습니다.

(주노 신부)

十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보잘것 없는 저에게 베풀어 주신 따뜻한 은혜에 대하여 하느님께 정말 감사 드립니다. 성모상과 아름다운 목주는 저의 병실을 계속 지켜 주셨고, 조용한 시간 녹음기에서 들리는 하느님의 음성까지 들으며 저는 한순간도 주님을 잊지 않으려 행복한 복상에 잠길 수도 있었습니다.

어찌저 인간으로서 도저히 가망을 알 수 없다는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도 저의 마음 깊은 곳엔 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확신이 주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뜻앞에 수술방에 들어가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빌면서 두려움을 잊었습니다. 무사히 병실에 돌아 왔을 때 아, 어쩌면, 제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기억하셨을까?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이 또다시 있으라는 감사와 찬미가 저의 마음을 충만케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의 문안을 보아 주었지만, 어떤 시선이었는지는 가지가지였을 것이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신부님께서 저의 마음 속의 그런 평화를 알아주셨다는 감각에 성모상을 대하고 뜨거운 눈물이 앞을 가리었지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머리칼 한올까지라도 기억하고 계시다는 말을 듣긴 했습니다만, 이토록 저를 끄집어 기억해 주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큰 사랑을 체험하고서도, 이제 가정에 돌아와서 시작되는 현실은 하루에도 몇 차례 기쁨과 절망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신부님, 하느님께서 죽음에서도 저를 구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는데, 남은 고통에 더욱 짜증스럽고 매달리는 이 엄약하고 가증스러운 저의 모습이 참 모순이네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계속 찬미와 감사 노래만 불러도 다 못다 할 것 같은 생각은 머리속 계산 일뿐, 실지로는 계속 죄인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자비와 사랑, 진노에 저는 새로운 두려움이 저의 시야를 막을 듯 합니다. 도대체 그 전지전능이, 오편하지만 주님의 뜻이, 어느만큼 인지! 감히 얼마나한 것인지 배우기로 시작했지요 오히려 무색하고 무참하기까지 합니다. 차라리 주저 않아 버리고 싶기도 하다가도 희망이 저를 잡습니다. 잘된것은 모두가 하느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까닭이며, 나쁜것은 저의 뜻 때문 인것을 병실에서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속히 건강 회복되어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인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신부님께서도 더 큰 사랑과 건강축복 내리시도록 빌겠습니다. 뵈옵는 날까지 안녕하십시오.

○○에서, ○○○ 드림

윤정이 (388) 김병오

부족되는 쌀
외국에서도 도입



쌀수급
걱정없다



정부말을
믿어도 좋을까?



정말로 외국쌀이
도입되었는지
인천항에 가보자



□생화·각종 화분·신부부
케 전문
※ 교우여러분께 특별히 모
시겠습니다

진선미꽃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②2628
범띠도(떡배)·이 마리아

환영! 고산천주교 성상회 발족
본당을 위해 헌신하도록
교우님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아동복·각종피복
경 영 상 회
시장입구. 유 욱 선

미곡류·가마니·사료
농 산 물 판 매 장
☎ 122 손 병 권

문 방 구·지 업 사
동 아 상 회
☎ 106번 장 경 암

신부화장 전문
란 미 용 실
주조장 열. 김 회 찬

칼라사진·각종도장
미 진 사
☎ 203 허 완

신 사 복·학 생 복
비 오 라 사
☎ 143 경 규 승

농 약·씨 앓
부 흥 농 약 사
☎ 71 임 생 수

중 화 요리
복 순 반 점
☎ 52 손 순 식

양 약·지 업 사
신 일 약 방
☎ 10 김 선 택

전자제품·전기공사
전 일 전 기
☎ 78 구 자 일

금·은·보석·시계
중 앙 사
☎ 107 구 근 회

한 약·수 예 사
인 화 당 한 약 방
☎ 27 유 성 식

잡 화 일 절
일 실 상 회
☎ 37 국 영 근

꽃상여 전문
호 납 꽃 집
성당 삼거리. 최 두 열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꾸르실로 성공을 위한 참석과 빨랑까 계속 부탁드립니다
남성 제14차 개회식(12일 <월> 오후 6시), 마나니따(15일 <목> 4시 30분), 폐회식(15일 <목> 6시 30분)
여성 제10차 개회식(19일 <월> 오후 6시), 마나니따(22일 <목> 4시 30분), 폐회식(22일 <목> 6시 30분)
2. 사도 회장단 연수회(23일~24일)에 이어 교구 평협 정기총회(25일)
3. 군옥지구 학생회 연합미사...1월 11일 <일> 오후 3시, 팔마 천주교회
4. 제22대 전주교구 중·고연합회 정기총회...2월 2일(일)
중·고 연합회 정기총회와 아울러 회장단 선출, 4지구내 본당 학생들의 많은 일후보 바람,
자격-영세한지 3년 이상, 전주시내 고등학교 1학년 재학중인 학생
5. 중·고학생 동계 목상회...1월 24일(토) 오후 2시~25일(일), 가톨릭센터에서
대상-교구내 중·고생(현 회장단 필히 참석 바람), 참가비-4천원
지참물-성경책, 성가집, 필기도구, 묵주, 세면도구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문정기
보좌 신부 박기성
보좌 신부 박기성
사도 회장 김원규

1. 꾸리아: 오후 2시, 강당
 2. 특별강연: 11일, 저녁미사 후
 3. 인성회: 14일, 오후 7시
 4. 지도위원회 정기총회: 11일, 오후 4시 박신부님 방
 5. 병자방문: 13일(화)
 6. 예비자 교리 시작: 18일부터
 7. 서울 전대회: 대상-여자 2천
시기-1월 16일~18일, 장소-서울 명상의 집
참가자는 박신부님께 15일까지 접수 바람
 8. 연인클럽: 불우 이웃돕기 연탄헌금 구정까지 합니다
 9. 특별헌금: 전북동-김주영(10만원)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499,136원

(노송동)

전화 ⑦7032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박나준
사도 회장 박나준

1. 제13차 성령세미나: 19일~24일까지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 베소라 성서강의: 매주(화) 저녁 7시 30분
수강생 여러분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3. 수녀님들을 위한 베소라 성서특강: 매주(월) 오후 2시
 4. 은혜의 밤: 1월 30일(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5. 어머니 성가대 정기총회: 13일 오전 11시
단원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6. 성령기도회: 매주(금) 오후 2시~4시까지
 7. 80년도 교무금을 완납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222,73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기오
보좌 신부 조정열
사도 회장 양상열

1. 화합안내: 매주 첫주-사도회, 둘째주-반석회
셋째주-애령회·성모회, 넷째주-진복회·부녀회
 2. 사도회 임원: 회장-양상열,
부회장-전종근·김용환, 전례부-김은식·이영남
선교부-소병을·박용철, 교육부-유계상·김주홍
청소년 선도부-김기·한인주
봉사부-정경신·하근도, 재경부-진홍철·이남연
감사-소완영·김용식
 3. 금주 반마사: 12일-덕진 11반·12반(정경신 맥),
12일-덕진 9반(조준석 맥), 13일-덕진 10반(정중
근 맥), 13일-송천동(이남연 맥)
 3. 반장님들 신자수첩 찾아가세요
 5. 반석회 모임: 22일 저녁 7시 30분
(박을상형제 맥) ③ 4596
- 지난주 봉헌금: 263,590원

(복자)

전화 ⑤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임영호
사도 회장 조영호

1. 성우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80년도 봉헌금 미수금 완납 바랍니다
 3. 81년도 봉헌금 정성드려 봉헌합니다
 4. 학생회 정기총회: (11일) 오늘 9시미사 후
 5. 주일학교 동계교리: 5일~10일
교리교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335,73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1. 반장님 월례회: 공식미사 후
 2. 예비 꾸리아 모임: 오늘 오후 2시
(각 Pr 임원님들 모두 참석바랍니다)
 3. 할머니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주일학교 6학년 졸업식: 다음주 토요일 오후 2시
 5. 다음주 전례담당: 신자들의 기도-조동근
독서-① 차상열 ② 김낙균
- 지난주 봉헌금: 156,790원 교무금: 60,800원

(숲정리)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중·고등학생 피정: 12일·13일
본당 중·고등학생 빠짐없는 참석 바람
 2. 성가연습: 매주 토요일 미사후
 3. 성모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80년도 교무금 미납을 속히 완납합니다
 5. 사도회 각 분과 부장님께서는 81년도 행사계획서를
오늘까지 제출 바람
 6. 신축헌금 내주신 분: 김환철 부주교님(10만원)
박해근(10만원), 김천진(3천원)
 7. 금주 전례담당: 해설-이기호
독서-남상용·김영재, 기도-정주복·이강노
차주 전례담당: 해설-정주복
독서-강원모·이철수, 기도-이기호·노재두
- 지난주 봉헌금: 258,625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병열
보좌 신부 김기성
사도 회장 유석중

1. 신병으로 유석중 사도회장님 사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이종두 사도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사도회 총회: 공식미사 후(각 분과위원장, 차장, 신
신담당, 구역장, 반장은 빠짐없이 참석 바람)
 4. 주일학교 자모회원, 교사 여러분 부곡은천 물에 몸
을 담구어 신경을 푸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일시-81. 1. 14(수), 참가비-1,500원
점심-각자 지참, 시간-오전 7시 30분 오라이!
 5. 성신 공개 셀: 1월 11일(오늘) 오후 2시
 6. 클로리아 성가대 정기총회: 15일(목) 저녁미사 후
 7. 주일학교 교사 정기총회: 11일(오늘) 9시미사 후
 8. 예비자교리 방학: 후보에 기재될 때까지
 9. 6~17세 사이 맏인 본당신부님께 연락 바랍니다
(교육문제 상의)
 10. 자모회: 공식미사 후 11. 장우회: 저녁미사 후
 12. 성화회: 다음주(18일) 10시미사 후
 13. 다음주 전례담당(18일)
아침미사: 사회-이신홍, 독서-① 최병래 ② 김창선
공식미사: 사회-이준영, 독서-① 이덕수 ② 배양길
저녁미사: 사회-김윤주, 독서-① 경양수 ② 정동희
- 지난주 봉헌금: 438,840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채수협

1. 꾸리아 회합: 오늘 오후 1시 30분
 2. 81년도 교무금 신임을 다음주까지 해주세요
 3. 신부님께서 가정방문을 하지 않은 가정 약도를 제출
 4. 지난해 총결산 총수입: 12,680,876원
총지출: 11,689,215원, 현잔액: 991,661원
- 지난주 봉헌금: 112,835원 어린이헌금: 1,905원
교무금: 60,000원